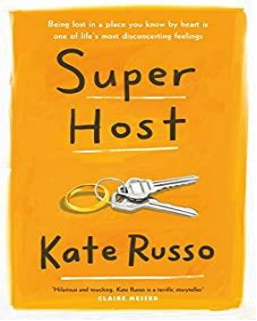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UPER HOST

가제 : 슈퍼 호스트 – 55세 내 인생, 오춘기가 시작되었다!

저자 : Kate Russo

출판사: Tinder Press

발행일: 2021년 2월 9일 예정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중년의 심리적 변화를 섬세하고도 유쾌하게 다룬 모던 소설!

* "강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케이트 루소는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 클레어 메수드

* "놀라운 데뷔작! 사랑, 외로움 및 예술적 야망에 대한 관대하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쓰여진 글."-제스 월터

중년에 접어들어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한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길을 잃은 것 같은 당혹스러운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어떨까? 주인공 베넷 드리스콜은 한 때는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명 예술가였다. 하지만 이제 55 세에 접어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떠나버렸고, 그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 측에서는 베넷이 사망하면 그림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므로 그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어한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런던 서부에 있는 큰 집 한 채와 집 정원 뒤에 딸린 스튜디오 작업실뿐이다. 그는 수입 마련을 위해 집을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기로 한다. 그의 생활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중년의 삶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외로움에 관한 소설이다.

베넷은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 지 일년 째로 접어들자 이제 침대 위 얼룩을 제거하는 일 정도는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그는 훌륭한 운영과 우수한 리뷰로 최근 '에어베드(에어비앤비와 비슷한 숙박 웹사이트)'에서 '슈퍼 호스트'에 올랐다. 그는 원래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누드화로 유명한 화가였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후 더이상 아내와 딸이 함께 사는 집에 여성 누드 모델들을 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물화로 작품의 방향을 변경했다. 이것이 그가 예술가로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계기라면 계기였다. 그의 개인전은 2013년이 마지막이었으며,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그의 그림은 구식이라며 악평을 퍼부었으나, 작은 평론의 대상마저 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이제 예술계 평론 대신 에어베드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리뷰들을 읽으며 자신이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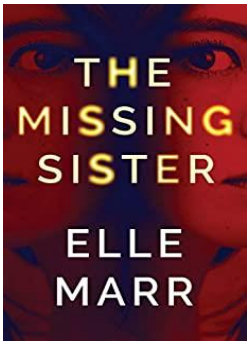
마나 섬세하며 우수한 호스트인지 확인하여 뿌듯해하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 1 년 전 미국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제프'라는 남자와 바람이 나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전처 엘리자가 에어베드 웹사이트에 들어와 자신에 관한 리뷰를 읽어 본적이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누군가가 "베넷은 훌륭한 남편감이며 현대 미술의 거장이기에 그의 그림도 몇점 샀다"라는 리뷰를 써서 엘리자가 그런 리뷰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길 기대하기도 했다.

사실 이혼은 그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이었다. 엘리자는 떠나기 2 주 전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열여덟 살인 딸에게 왜 엄마가 뉴욕으로 떠났는지 설명하는 것도 남겨진 베넷의 몫이었다. 그는 지난 25 년 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저 스스로를 믿을만한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엘리자는 그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엘리자는 자신이 평생 갇혀 살았다고 생각하며 베넷의 몸에 악마들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딸마저 예술 학교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자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스튜디오에 앉아 가끔 손님들을 훔쳐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위대한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신의 그림에 인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안정과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그림을 그린 자신과 달리, 베이컨은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 잡혀 물감에 자신의 불안을 섞어 그림을 그린 화가였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그 안전추구성이 엘리자를 지치고 짜증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직 현상 유지에만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술과 진지하게 마주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그 곳에서 일하는 클레어를 비롯해 첫 게스트인 알리시아와 다른 두 명의 인상적인 게스트들은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클레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으로, 베넷은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다. 게다가 베넷은 클레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듣게 된다. 그는 주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며 벌어지자 혼란에 빠진다.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인생의 한 시점에서 베넷은 이 혼돈을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따뜻한 휴머니즘과 유머가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루소(Kate Russo)는 미국 메인 주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영국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Slade School of Fine Art 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 : THE MISSING SISTER
가제 : 내 동생 어딨어?! - 암호를 남기고 실종된 쌍둥이 여동생
저자 : Elle Marr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4월 1일
분량 : 29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300,000 부 이상 판매 기록, 아마존 베스트 셀러, 2020 년 3 월 아마존 'First Reads' 선정
* 1,326 개 리뷰 보유, 별 4 개 평점의 수작 스릴러 ★★★★
* "쌍둥이가 공유하고 있는 기괴한 유대감과 한 살인자의 무시무시한 범죄 동기에 대한 탐구" -커커스 리뷰

중국계 미국인인 샤이나는 의과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으로 혼자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고, 쌍둥이 동생인 안젤라는 파리에서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때는 정말 가까웠던 사이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천천히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이나는 안젤라의 남자친구라는 세바스찬으로부터 안젤라가 파리에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는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래 전에 듣긴 했지만 안젤라는 이미 세바스찬과 끝난 사이었고 세바스찬으로부터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샤이나는 처음에는 안젤라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안젤라는 곧 서툰 프랑스어 실력으로 르몽드 지에 난 한 기사를 읽었다. 그것은 바로 안젤라처럼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한 학생이 총상을 입은 채 센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였다. 샤이나는 곧 안젤라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하던 중, 미 대사관은 안젤라의 비보를 전했고 결국 이 세바스찬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게다가 안젤라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발렌틴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결국 샤이나는 안젤라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안젤라의 파리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로 떠난다.

안젤라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세바스찬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샤이나는 안젤라의 현관 앞에 떨어진 러시아어로 된 신문에서 '밀거래'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세바스찬은 샤이나에게 자신은 안젤라와 1 년째 연애 중이었으며 안젤라의 시신은 실종된지 열흘 만에 센 강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시신이 훼손되어 얼굴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문신으로 겨우 그 시신이 안젤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샤이나에게 대체 누가 안젤라를 노렸으며 어떻게 그녀가 소르본 대학에서 센 강까지 가게 되었는 그 과정을 자신과 함께 밝혀 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샤이나는 안젤라의 방으로 들어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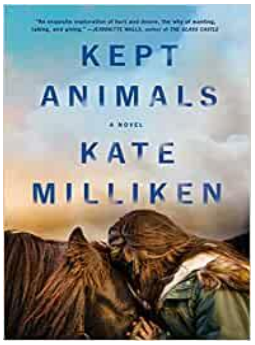
간 그곳에 걸려 있던 화이트 보드에 어린 시절 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발한 암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난 살아있어. 그 누구도 믿지마.'라는 뜻이었다.

샤이나는 안젤라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가 남긴 말을 명심하고 세바스찬은 물론 안젤라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인 대사관 직원 장 뤽도 믿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안젤라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안젤라가 죽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형사 발렌틴 역시 샤이나의 계속되는 질문에 왠지 모르게 답하는 것을 망설이는 듯했다. 다만 그는 그간 비슷한 종류의 연쇄 살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희생자 중 다수가 공교롭게도 쌍둥이들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이후 샤이나는 홀로 안젤라의 지난 며칠들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샤이나는 안젤라가 논문 작업 때문에 파리 지하 묘지들을 오가며 연구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안젤라가 지하 묘지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샤이나는 밀실 공포증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만이 이 지하 묘지들을 탐험하며 안젤라의 행방을 밝혀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샤이나는 그 지하묘지가 과거에 나치들이 이용했던 장소이며 지금도 여전히 이 공간이 인신 매매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샤이나는 조사 중에 핸드폰을 도둑 맞게 되고 그 동안 모았던 모든 자료들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샤이나는 안젤라가 방문한 적 있는 오래된 매춘 업소에 갔다가 고객 중 한 명이 그녀를 안젤라로 착각하는 바람에 강제로 압셍트를 마시게 되고 술에 취해 환각인지 실제인지 모르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샤이나는 이 매음굴과 지하 묘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샤이나는 한 노숙인에게 납치 당하게 되고 눈을 떴을 때 세바스찬이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화학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이 쌍둥이 자매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선 이 곳에서 샤이나는 과연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위험한 추리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엘르 마르(Elle Marr)는 신인 작가로 와인과 치즈가 가득한 프랑스에서 3 년을 보내며 소르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전 남부 캘리포니아의 도시 광야를 탐험했다. 현재 그녀는 포틀랜드에서 글을 쓰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제목 : KEPT ANIMALS
가제 : 토팡가 캐니언 - 그 시절, 우리의 첫사랑
저자 : Kate Milliken
출판사: Scribner Book Company
발행일: 2020년 4월 2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 Center for Fiction's First Novel Prize 롱리스트 선정!
* "계층, 욕망, 성년, 가족 해체에 대한 여러 일화들로 가득 찬 소설이자, 기만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불안정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책"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한 교통사고 이후 영원히 바뀌어 버린 십대 소녀 세 명의 삶에 어두운 이야기.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목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복잡한 관계, 곪아버린 죄책감들로 얼룩진 20 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리더스 다이제스트」

로리 라모스는 캘리포니아 주 토팡가 캐니언에서 그녀의 새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목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목장에는 주로 부유층 고객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그 중에는 쌍둥이 남매인 준과 웨이드가 있었다. 로리는 늘 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썼지만, 준은 헐리웃 스타인 아빠와 함께 언덕 아래에 있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비비안 프라이스라는 소녀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로리의 새 아버지가 한 교통 사고에 연루되면서, 로리와 준, 비비안 이 셋은 결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이게 된다. 게다가 로리 앞에는 상상도 못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버린 세 십대 아이들의 과거와 미래, 성 정체성, 욕망과 상실, 계층에 관한 소설이다.

1993 년 11 월 아침, 캘리포니아 주 토팡가 캐니언에서 돌풍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고 그 불길은 엄청난 속도로 태평양 해안까지 도달했다. 엄청난 수의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거센 바람 앞에 불길은 속수무책으로 번져만 갔고 그나마 보트를 가진 사람들만 바다로 피신할 수 있었다. 이 대참사로 18,500 에이커가 넘는 부지, 400 여 가구가 소실되었고 수많은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을 누구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재 사고가 나기 4 개월 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이미 지난 6 년간의 가뭄이 끝났다고 선포했지만 지난 겨울 그나마 내렸던 비마저 LA 도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저수지로 보내졌고 토팡카 캐니언 지역은 여전히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로리는 길에서 만나는 코요테나 여우 등 가뭄에 신음하는 모든 야생 동물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로리는 10 년 전, 이민자 출신에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는 너무나 다정한 새 아빠 거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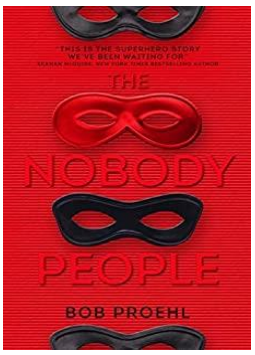
살기 위해 엄마 모나와 함께 이 건조한 땅으로 이사 왔다. 로리의 집 근처에는 아직 로리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쌍둥이 남매인 준과 웨이드가 살고 있었는데 웨이드가 가지고 있는 말은 로리네 차 보다 더 비싼 말이었다. 로리는 고객인 그들이 시키는대로 했으며, 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면서 시간당 3.75 달러의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었다. 고객들은 로리의 집과는 다르게 에어컨이 설치된 집에 살면서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스는 목장에서 거둔 여우를 돌봐야 했고 준이 로리를 집에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사실 로리는 은근히 준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로리는 거스를 제외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준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준의 가족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눈치챘다. 그리고 이 날 이후 로리는 준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또한 로리는 집 창틀에 준과 앉아 자기 집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비비안 프라이스를 바라보던 중 문득 비비안이 그림이나 사진 속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준이 비비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얼마 후 로리는 준과 웨이드가 모두 참가하는 말 경주에 참여하고 되고, 로리가 우승하는 바람에 경쟁심 많은 준이 큰 실망을 하게 되자 둘 사이는 잠시 멀어지게 된다. 한편, 로리는 사진의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동물들을 대상으로 멋진 사진을 찍으면서 멋진 사진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로리의 새 아빠 거스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비비안 프라이스의 어린 남동생을 차로 치어 죽게 만드는 사고를 내버렸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로리와 비비안은 오히려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로리는 어느 날 비비안을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했다. 로리의 방에서 우연히 로리의 사진 작품들을 발견한 비비안은 로리의 사진들에 푹 빠져 자신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평소 비비안을 찍고 싶어 했던 로리는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한다. 당시 비비안은 웨이드와 사귀고 있는 중이었는데 비비안은 계속 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던 중 로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둘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던 날 로리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 웨이드가 로리가 찍은 비비안의 비밀스러운 사진들을 보게 된 것이다. 이후 로리는 임신한 채로 와이오밍으로 떠나버린다.

그리고 22 년 후, 이 소설은 로리의 딸 찰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전개된다. 찰리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의 열쇠를 찾으려 하고 마침내 엄마 로리와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 내기로 한다. 거칠고 무자비한 자연을 배경으로 계층 문제와 첫사랑이 가진 힘, 트라우마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밀리켄(Kate Milliken)은 2013 Iowa Short Fiction Award 를 수상한 이야기 모음집인 『If I 'd Known You Were Coming』의 저자이다. Bennington College Writing Seminars 를 졸업한 그녀는 Vermont Studio Center 와 Tin House Summer Workshop 에서 펠로우십을 받았다. 현재 그녀는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고 있으며 이 책은 그녀의 첫 장편 소설 작품이다.



제목 : THE NOBODY PEOPLE (The Resonant Duology 1 편)

가제 : 히어로즈 –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 그들이 원하는 세상

저자 : Bob Proehl

출판사: Titan Books

발행일: 2020년 9월 8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SF

*** 영화 <500일의 썸머>, <스파이더맨 시리즈> 감독 마크 웹이 메가폰을 쥐고 Fox사에서 영화화 예정!**

*** 북리스트 선정 최고의 책 작가인『A Hundred Thousand Worlds』 저자의 신작**

*** X-Men 시리즈 팬들을 위한 책**

전쟁 전문 기자 애비 허쉬는 항상 그의 일곱 살짜리 딸 에멜린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자, 애비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딸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하지만 에멜린은 곧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이들이 만나 벌어지는 2부작 소설로 중 1편이며, 편협함과 혐오에 직면하게 된 사람들의 현실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과감히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SF 소설이다.

얼마 전 애비는 위험한 현장에서 취재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었고 병원에서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중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눈을 떴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미국 국토 안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정보원인 루이스였다. 루이스는 방금 중요한 이메일을 전송했으니 어서 확인해보라며 그를 다그쳤다. 애비는 일단 거실로 갔고 그 곳에서 아내 케이와 달걀 요리를 하고 있는 에멜린을 발견했다. 딸 에멜린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에멜린은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라고 말하는 애비에게 오늘 자신이 어딘가에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 괜찮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날 점심 식사를 마친 애비는 에멜린의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인종차별주의자 소년 하나가 에멜린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높은 곳에서 에멜린을 밀었다는 것이었다.

이메일을 연 애비는 두 개의 비디오 파일을 발견했다. 하나는 지난 주에 촬영된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달 전의 영상이었다. 한 달 전 영상 속에는 워싱턴 외곽에서 일어난 한 쇼핑몰 폭발 사고 때문에 19명이 사명한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었다. 두 번째 영상은 현재 애비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로즐란드에 있는 한 흑인 교회 살렘 밥티스트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영상으로 이 일로 두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시카고의 흑인 공동체는 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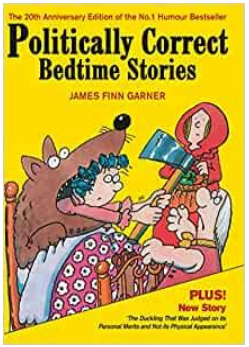
때문에 바로 지옥처럼 변해버렸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애비 역시 이런 일들은 워낙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뉴스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미 안보부에서 이러한 백인 토착 테러리스트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애비는 첫 번째 쇼핑몰 폭발 사건 영상을 클릭했고 그 영상 속에 한 금발 머리를 가진 한 십대 백인 소년과 흑인 소녀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애비는 혹시 소년이 폭탄 장치가 있는 밸트나 조끼, 혹은 손에 기폭 장치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폈다. 소년과 소녀는 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년이 구걸하듯 소녀에게 손을 내밀더니 곧 소녀를 밀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소년의 몸과 손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애비는 아수라장이 된 화면 속을 들여다보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다음 영상 속에서도 역시 애비는 그 금발 머리 백인 소년을 또 보게 되었는데 그 소년은 설교를 하고 있던 흑인 목사 마샬 볼드윈에게 다가갔고 목사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청하자 그 소년은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말투로 몇 마디를 던졌고. 그 순간 또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루이스의 연락을 받고 그를 만난 애비는 이 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취재하기로 결심한다. 사실 그는 영상을 보는 내내 자신의 비범한 딸 에멜린을 떠올리며 딸과 같은 기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다. 애비는 에멜린이나 그 백인 소년처럼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한 아카데미를, 남매인 패트릭과 사라와 함께 운영중인 초능력자 케빈 비숍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언젠가 세상이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며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애비는 에멜린이 아직 어리지만 곧 초능력을 가진 이들 중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에멜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아카데미로 에멜린을 보낸다. 그 곳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캐리 노리스와 기계를 다루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파히마 딥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두려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온갖 차별과 혐오를 자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차별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고 거리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폭도들과 함께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민자와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한 소년이 등장했다. 그리고 아카데미 내부에도 역시 적이 있었다. 단순한 판타지 히어로물이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밥 프로엘(Bob Proehl)은 뉴욕 이타카에 있는 Buffalo Street Books의 프로그래밍 디렉터, DJ, 레코드 스토어 주인 및 바텐더로 일한 바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Salon과 American Short Fiction에 실렸다.

NON-FICTION



제목 : POLITICALLY CORRECT BEDTIME STORIES – **25주년 기념판**
가제 : (당신의 편견을 바로잡아줄) 바른 동화
저자 : James Finn Garner
출판사: Souvenir Press Ltd
발행일: 2020년 9월 예정 (초판: 2011년 9월 1일)
분량 : 86 페이지
장르 : 동화, 교양

*** 2011년 초판 출간 이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60주 이상 올랐으며, 영국에서만 37만부 판매! 25개국 판권 계약!**
*** 25주년 기념판으로, 피노키오 이야기가 추가**
*** "아주 우아한 단어들로 수십 종류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리는 책" – 「더 타임즈」**
*** 결코 폭력적이지 않고, 남성 편향적이지 않은, 취침 시간을 위한 동화 모음집 – 「데일리 텔레그라프」**

옛날 옛적에, 신체 건장한 특권층 중년 남성들은 엘리트들만이 가는 클럽에 모여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질식할 것 같은 뿌연 연기로 가득한 곳에서 시가를 피우며 온갖 음모와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곤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야기들은 이러한 남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제한되고 편협한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고, 이 중 많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과 달라 보이는 존재들을 마녀, 기이한 동물, 고블린, 요정이라고 낙인 찍고 그들을 비하하면서 남성 편향적이고 가부장적인 시선을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그리고 이야기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세대에 걸쳐 아이들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동화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핀 가너는 바로 이런 고전 이야기들을 백설공주와 일곱 명의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남자들, 빨간 망토 소녀 속 할머니와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 이성의 복장을 입는 사람)' 늑대가 만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체 가정을 꾸미는 이야기, 알몸으로 활보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방식을 선택한 황제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계몽된 시대인 현대에 맞게 다시 쓸 기회를 얻었다. 또한 그는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부터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닌 오리 개인이 가진 장점으로 평가되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지 상상해보았다. 이 책은 마녀, 거인, 난쟁이, 고블린, 요정에 대한 모든 편견과 차별을 없앤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으로, 잭이 콩 나무 위로 올라 갔을 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갔을 때,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입김으로 날리려고 했을 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다시

상상해보고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결함들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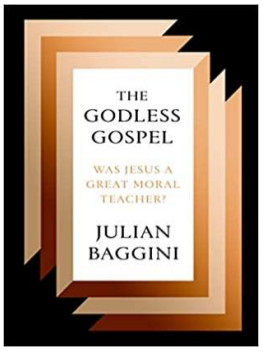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이 책이 출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보고 즐기는 영화와 광고들, 이야기들 속에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병든 생각들과 편견들이 가득하다. 이 책의 특별판 서문에서 저자가 쓴 바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후진적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집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물론 우리들 모두 안전하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민족 중심주의, 과거의 무지한 문화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동화이다.

<목차>

서문
빨간 망토
벌거벗은 임금님
아기 돼지 삼형제
황제의 새 옷
룸펠슈틸츠킨
세 마리의 독립적인 염소
라푼젤
신데렐라
골디락스
외모가 아닌 개인적인 장점으로 평가 받은 미운 오리새끼
+ 피노키오

<저자 소개>

제임스 핀 가너(James Finn Garner)는 시카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연기자이다.



제목 : THE GODLESS GOSPEL

가제 : 무신론자가 전하는 복음

- 예수에 대한 오해: 기독교 철학과 예수의 가르침

저자 : Julian Baggini

출판사: Granta Books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종교, 철학

전 세계 인구의 3 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산업 도시들에 있던 교회나 성당들은 거의 텅텅 비어 있거나 버려진 상태이며 심지어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개조되기도 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예수가 필멸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62%는 신은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수의 성직자들 역시 예수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은유적인 용어로 해석하며 금세기 초 영국 교회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상당수의 성직자들 역시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과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품고 있다. 오늘날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교사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가 늘 말했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과 용서와 행함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도덕적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위협 받고 있는 '공유의 가치'를 지키고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도덕적 접착체로서의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수는 정말로 그러한 가치를 말하고 전파했던 사람이었을까?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 빈자를 돕는 것, 친절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과연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 줄리안 바기니는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부활과 같은 종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적 가치와 예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가정들에 대해 과감히 도전한다. 먼저 저자는 자아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치, 성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던 예수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묻는다. 가톨릭 집안 출신이지만 자신을 무신론자로 정의하고 있는 저자는 대중 문화가 묘사한 예수의 모습보다 더 급진적인 면모를 가진 예수의 모습을 소개한다.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때로는 모순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두고 씨름하면서 회의론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날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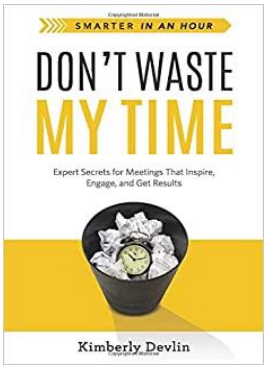
철학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1부 :나사렛 예수의 도덕 철학
서문
1장. 영혼의 혁명
2장. 성격의 문제
3장. 법의 혁명
4장. 세계의 포기 선언
5장. 정치의 포기 선언
6장.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7장. 비-판단
8장. 가족 가치에 반하는 것
9장. 분열의 씨 뿌리기
10장. 하나님 없이도 좋은
결론
(이하 생략, 총 2부 2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줄리안 바기니 (Julian Baggini)는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How the World Thinks: A Global History of Philosophy』의 저자로 『Freedom Regained』, 『The Virtues of the Table』, 『The Ego Trick Welcome to Everytown』, 『What 's It All About』등 그의 저서 다수가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또한 그는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의 아카데믹 디렉터이며 Guardian, TLS, Financial Times and Prospect 등 다양한 매체 및 싱크 탱크 기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DON'T WASTE MY TIME (Smarter in an Hour 시리즈, 1권)
가제 : 회의는 한 시간 안에 끝냅시다
- 짧지만 퀄리티 있는 회의를 위한 가이드
저자 : Kimberly Devlin
출판사: TPH
발행일: 2019년 8월 2일
분량 : 121 페이지
장르 : 경영

*** 단 한 시간 만에 '좋은 회의'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책**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중 한가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모두 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단 한 시간 만에 내게 꼭 필요한 것들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Smarter in an Hour'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이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만 하는 시간이 아닌 효과적으로 팀을 이끌고 갈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높은 '좋은 회의'를 할 수 있는지, 그 전략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 책의 저자 킴벌리 델빈은 여러 팀이 모인 대규모 회의, 소규모 직원 회의, 학부모 회의, 원격 화상 회의이든 규모나 목적, 회의 유형에 관계 없이 어떤 회의이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단 한 시간만 투자하면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저자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의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 회의 참가자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참가자들이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스스로 말을 하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셋째.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날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 책에서 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대표적인 전략과 필수 요소, 방법들이다.
1. 회의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회의를 위한 7가지 전략과 계획안
2. 목적, 규모, 시기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는 의제를 만드는 7가지 요소
3. 회의를 망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50개 이상의 사전 전략

4. 산으로 가고 있는 회의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13가지 기술
5. 모든 회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보장하는 3 단계 방법
6. 일대일 회의에서도 대화의 형식을 빌려 성공적인 회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단 한 권의 책으로 단 한시간 만에 성공적인 회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 북이다.

<목차>

이상적인 회의는 어떤 것인지 재정의 해보자
'프리사이즈'라는 말은 옷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인 회의를 재정의 하는데 이 책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준비, 출발!
한 시간 만에? 정말로?
단 60분 만에 당신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1장.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회의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회의를 위한 7가지 전략과 계획안
회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계획안: 목적
계획안: 장소
계획안: 어젠다
계획안: 명칭들
계획안: 노트 필기
계획안: 기대
회의 참가자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당신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
계획안: 책임들
(이하 생략, 총 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킴벌리 델빈(Kimberly Devlin)은 이 세상에서 '이론'이란 과대평가 받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실용주의자이다. 그녀는 정보 과부하와 시간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녀는 예리한 시선을 가진 작가이자, 국제 연사, 조력자 및 교육 디자이너로 20 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리더와 조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목 : WHITE FEATHERS
가제 : 새들의 세상 - 세계적인 생태학자의 애정을 담은 제비 관찰기
저자 : Bernd Heinrich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생태

*** 세계적인 생태학자이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책 『Ravens in Winter and A Naturalist at Large』 저자의 신작**
*** "나무 제비의 둥지 짓기에 대한 사랑스러운 묘사, 새로운 질문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쓰여진 서정적인 글" -「북리스트」**

아름다운 책들을 성실히 써내고 있는 다작가이자 자연주의자인 베른트 하인리히는 그저 흐뭇한 얼굴로 이따금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느 이른 봄날, 한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는 오두막집 박스 둥지안에서 살고 있는 제비 한 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들이 왜 그토록 쉽게 구할 수도 없는 하얀 깃털을 둥지를 짓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선호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또한 그 제비들이 다른 이웃 제비들에게 극도로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익히 제비들이 가진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제비들이 얼마나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또 제비들이 예외적으로 얼마나 인간의 길들임에 익숙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은퇴한 이 노교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봄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조용히 앉아 나무 제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리를 녹음하고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다. 우선 처음에 그는 버몬트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한 쌍의 나무 제비들에게만 집중했다. 때때로 그는 새벽이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마침내 오전 6시 46 분에 수컷 새는 상자에 착지하여 안을 들여다보고 오전 7시 12 분까지 조용히 나무에 앉아있었다" 와 같이 새들의 행동을 분 단위로 기록했다. 하인리히는 철새들이 돌아와서 짝짓기를 하고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마침내 알이 부화한 시기와 부모 제비들이 아기 제비에게 먹이를 주는 빈도, 먹이를 준 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얀 깃털에 집착하는 나무 제비들의 습성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하얀 깃털을 미처 구하지 못했을 때는 화장지 조각으로 다양한 크기와 색상을 가진 깃털 모양을 만들어 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얀 깃털과 관련된 의문을 푸는데 성공했다.

저자가 직접 책에서 밝혔듯이 8년 동안에 걸친 하얀 깃털과 제비의 행동의 연관성을 관찰하고 찾는 행위는 사실 연구 내내 그에게 매혹과 좌절 모두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지난한 연구 덕분에 일반 독자들이 나무 제비들에 대해 미처 알고 싶어했던 적이 없었거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주의자로서 바라보는 자연과 새들의 세계에 대해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무, 둥지, 새, 깃털, 알과 같은 새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삽화들과 저자가 스스로 찍은 흑백 클로즈업 사진들이 가득한 이 책은 새를 좋아하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따뜻하고도 유쾌하며 아름다운 책이다.

<목차>

감사의 말
서문
2010년
1장. 둥지 속에서 굶주려 있던 새들
2011년
2장. 마지막 새 생명을 위한 헌신
2012년
3장. 성공적인 알 낳기
2013년
4장. 알의 크기 및 날씨로 인한 말살
2014년
5장. 둥지 초보자
6장. 깃털 실험
7장. 아기 돌보기

<저자 소개>

베른트 하인리히(Bernd Heinrich)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Winter World』, 『Mind of the Raven』, 『Why We Run』, 『The Homing Instinct』, 『One Wild Bird at a Time』을 포함한 수많은 책의 저자이다. 그는 『Life Everlasting』으로 2013 년 PEN New England Award에서 수상한 경력을 포함해 여러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제목 : DESIGNING DISORDER
가제 : 도시 생각: 무질서의 인프라 - 이상 도시를 위한 고찰
저자 : Richard Sennett, Pablo Sendra
출판사: Verso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7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건축, 사회

*** 요즘 같은 시기에 읽기 딱 알맞은 책, 두 저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도시는 동질성에 저항하고 차이를 장려하여 사람들이 건축 환경과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도시이다. - 이온 오 브라이언, 「아이리시 타임즈」**

1970년,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인 리처드 세넷은 당시에는 꽤 급진적인 책으로 알려졌던 『The Uses of Disorder』를 발표했다. 계획과 질서 하에 움직이고 있는 도시에는 항상 결함이 있기 마련이며 취약하고 제한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지를 앞세우는 내용이었다. 당시 그는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조성되고 있는 재개발 복합 단지 사업을 일컫는 말)를 콕 집어 그 예로 들며 도시 안에서 부와 권력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도시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The Uses of Disorder』가 당시 현대적인 도시 개발을 도시 생활을 지워버리는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 지적했다면 그가 바라본 오늘날의 도시 질서는 모두 부동산 산업의 세계화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현재 많은 현대 도시들의 공공장소는 민영화, 감시 강화 정책, 도시 기획자의 압력으로 인해 활기와 생명력을 잃고 있으며 견고한 질서 하에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 과연 우리들의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는 유연한 공간, 공공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사실상, 리처드 세넷이 말하는 활기차고 열린 도시는 결코 자연히 발생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세넷 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 환경이 가진 경직성 때문이며 이러한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고 있는 '무질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세넷 교수와 이 책을 함께 쓴 건축가 파블로 센드라는 처음 세넷 교수가 쓴 『The Uses of Disorder』를 읽은 뒤, 계획되지 않은 활동을 허용하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따라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개방형 도시를 형성하는 무질서를 수용하는 도시 설계를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자발적인 활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을 위한 도시 디자인 실험들을 제안한다. 비공식성과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에 따라 형성된 환경을 가진 도시 곳곳의 경직성을 해체하고 도시 디자인이 가진 혼란성의 장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도발적인 책에서 두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사회적 면모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사회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상적인 도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재구성 요소들을 제안한다. 두 사람이 이 책에서 '무질서의 인프라'라고 부르는 것은 건축, 정치, 도시 계획 및 활동주의를 결합하여 억압보다는 도시를 성장시키고, 분열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장려하며, 폐쇄보다는 변화에 개방적인 장소를 개발하기 위한 요소들을 뜻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도시와 '무질서'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결합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서문

제1부. 시민 사회

제1장. 숨겨진 도시의 정치

제2장. 열린 형태들

제2부. 장애를위한 인프라

제3장. 종이에서 계획으로

제4장. 아래로

제5장. 위로

제6장. 섹션의 장애

제7장. 프로세스와 유동성

(이하 생략, 총 3부 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리처드 세넷 (Richard Sennett)은 New York University와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사회학 교수이다. 사회학자가되기 전에 그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또한 그는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에서 평생 공로를 인정 받아 2006년 Hegel Prize를 수상했다.

파블로 센드라 (Pablo Sendra)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Bartlett School of Planning의 계획 및 도시 디자인 부분 강사이다. 도시 디자인 회사인 Lugadero의 파트너이자 CivicWise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런던의 지역 사회 단체 및 활동가와 협력하여 행동 연구 프로젝트와 혁신 교육을 개발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공동 저자로 참여한 『Community-Led Regeneration』과 공동 편집자로 참여한 『Civic Practices』가 있다.

제목 : THE ANXIETY FIRST AID KIT

가제 : 불안 상자 –'불안'이 찾아오면 이 책을 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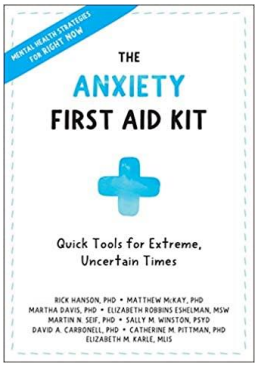
저자 : Rick Hanson, Elizabeth Robbins 외 4명

출판사: New Harbinger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120 페이지

장르 : 심리, 처세



*** COVID-19 대유행 중 요즘 같은 때에 더욱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

코로나-19는 단 몇 개월 만에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고 첫 2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 300,000 명 이상이 COVID-19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과 주변 걱정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최근 Kaiser Family Foundation이 진행했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염병이 미국인들의 심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5 %가 전염병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 이 중 19%에 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신 건강 및 심리 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 만약 우리가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결코 우리 혼자만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이 극단적이고 불확실한 시대에 정신적, 육체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겐 갑작스러운 실직,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 새벽 두 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순간들, 이 모든 고통의 경중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고통과 불안을 잠재울 빠른 응급 처치 요령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 건강 분야의 베테랑들이 팀을 이루어 현장 경험과 오랜 연구 끝에 확립된 전문 이론을 기반으로 꼼꼼히 집필한 이 책은 누구나 가장 시급한 순간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책이다. 갑작스러운 공황 상태에 빠진 독자라면 당장 그 상태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듯, 모든 행동을 멈추고 이 책을 통해 패닉 상태에서 즉시 평온한 공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안 지수가 과도하게 높아지기 전에 천천히 긴장을 풀 수 있는 즉각적인 처치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을 위한 응급 처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높여 건강하고 실행 가능한 생활 방식 변화를 통해 앞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떤 불확실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수록되어 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전염병과

관련된 경제적 두려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 하는 상황이 주는 좌절감, 그리고 다가오는 심각한 질병의 위협 사이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내게 찾아온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유용한 정신 건강 가이드북이다.

<목차>

서문
제1부: 당장 평온함을 얻기
제1장. 놀라지 말아요
제2장. 당신은 안전해요.
제3장. 횡격막 호흡
제4장. 당신만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보세요.
제5장. 피난처로 떠나보세요.
제6장. 점진적인 이완
제7장. 앉아서 명상하기
제8장. 빨리 휴식 취하기
제9장. 휴식
제10장. 안전하다는 것을 느껴보기

<저자 소개>

매튜 맥케이 (Matthew McKay, PhD)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있는 Wright Institute의 교수이다. 저작으로는 『The Relaxation and Stress Reduction Workbook』, 『Self-Esteem, Thoughts and Feelings』, 『When Anger Hurts』, 『ACT on Life Not on Anger』 등을 비롯해 두 권의 소설 『Us』와 『The Wawona Hotel』을 출간했. 또한 그는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불안과 우울증, 인지 행동 치료 분야의 전문가이다.

엘리자베스 로빈스 에쉴만 (Elizabeth Robbins Eshelman)은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의 마케팅 및 인터넷 서비스 그룹에서 직원 운영 컨설턴트로 일한 바 있는 임상 사회 복지사이다. 현재 그녀는 은퇴 후, 임원 및 기타 개인을 위한 공인 코치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 책에 소개된 기술과 기술을 실무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